

사설

전통사찰 훼손 막으려면

지난 9월 23일 열린 한국정원학회 창립 20주년기념 학술논문 발표회에서 불교계가 주목해야 할 논문 한 편이 발표되었다. 동국대 조경학과 홍광표 교수의 '전통사찰의 보존'이라는 제목의 논문인데, 홍 교수는 이 논문에서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전통사찰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나아가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문화 경관을 해치는 사례가 빈번하다" "최근 전통사찰 주변을 개발하기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의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행 및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전통사찰의 원형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의 지적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99년과 올해에 걸쳐 환경분쟁을 겪는 전통사찰이 10곳이 넘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와 사업자들이 주머니 벌리기 경쟁을 이끄는 산 좋고 물 맑은 사찰 주변을 개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다.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해인사 인근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하는 지경이 다른 곳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홍 교수는 훼손을 막기 위해 전통사찰 주변 개발 억제제를 위한 관

법(전통사찰보존법, 자연공원법 등)의 정비, 불사위원회의 신설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앞의 방안은 정부와 국민들을 향한 것이다. 다행히 최근 정부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를 제한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개발업자와 자치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설득, 법적 미비점의 보완 등 대비도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 스스로 불사라는 이름으로 전통사찰의 존엄을 해친 사례가 늘고 있다. 우리 스스로 전통사찰에 대한 보존 대책을 세우지 않고 남에게 보호해야 한다고 외쳐서는 안되겠기에 불사위원회 설치의 시급하다.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니다.

사찰은 부처님을 모신 성소이며, 불교를 떠받치는 수행·신행의 핵심적인 공간이다. 또 사찰은 불교만이 아닌 산 좋고 물 맑은 사찰 주변을 개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다.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해인사 인근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하는 지경이 다른 곳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홍 교수는 훼손을 막기 위해 전통사찰 주변 개발 억제제를 위한 관

사면논의 활성화 하라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이라 할 수 있는 조계종은 결본기의 안정과 달리 그 밑바닥에 심각한 불안의 씨앗을 안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불안의 요인은 98, 99년에 걸쳐 일어났던 분규 사태가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화개혁회의에서 총무원과 중앙총회로 상대로 낸 소송이 아직 6건이나 진행 중인 채로 있다. 그 판결의 결과에 따라 현 조계종단이 또 다시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것은 그 뿌리에 분규사태가 빚은 불화와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설사 소송이 현 종단의 안정을 흔들지는 판결로 귀결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 바탕에 놓여있는 불화와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조계종단은 항상 내부적인 문제에 발목이 잡힌 채 불합의 중흥을 위해 비상하는 종단으로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하기에 화합을 위한 노력이어야 할 조계종의 앞날이 걸린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조계종단의 분위기와 움직임을 보면 이러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실종된 듯 하다. 지난 총회는 불미스러운 유희사태로 인하여 열반자의 사면을 위한 중흥개정안에 대한 보고조차 이루어질 기회가 없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태는 현 종단의 지도급 인사들의 무책임하고 무감각하며, 안이하기 짝이 없는 종단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개혁을 통하여 정화회의의 쪽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우월한 도덕적 지위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안이한 대응이 계속된다면 조계종의 화합은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하루 빨리 종단의 화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큰 원칙 아래에서 사면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런 큰 자세를 지니는 한편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상대적으로 정통성에 있어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해야만, 정화회의의 쪽에 대하여 사면을 시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반성과 참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대의명분에 합당한 사면을 이룩하고, 그 화합된 힘으로 미래지향적 과업에 힘을 합하는 것이 지금 조계종이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임을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한다.

“재가자 종단운영 참여” 99%

청정교단-신행혁신-종단화합順 주요 과제

재가연대 500명 활동방향 의견조사

재가 지도자들은 재정투명화 등 건강한 교단 및 사찰 만들기를 가장 중요한 활동과제로 인식하고, 재가불자가 종단운영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가 7월12일~8월15일 재가 지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가불자 활동방향 정립을 위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재가불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활동과제로 건강교단을 위한 활동(24.6%), 신행혁신운동(14.7%), 종단안정과 화합을 위한 활동(13.3%), 불교활동 인재양성 활동(10.7%) 등을 꼽았다.

특히 재가불자의 종단운영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무려 68%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부분적 필요'도 31.1%(상관없음 1%)에 달해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종단운영의 필요성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조건에서 종단운영 참여에 가장 필요하고 가능한 것으로는 종단정책 자문기구 참여(26.1%), 사찰운영 참여(25%), 포교(신도)기관 참여(14.2%), 총회 의원 참여(9.6%) 등으로 응답해 종단 자문기구·사찰운영 참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사찰재정투명화운동의 성과를 위한 사업으로는 사찰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활동(30.5%), 사찰 회계관리 투명화를 위한 입법 추진(25.7%), 사찰재정 건전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서명운동(각각 10.5%) 등으로 나타나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한편 재가 지도자들은 재가연대의 사명에 대해 청정교단 만들기(47.1%), 재가불자 신행혁신(34.6%), 사회참여와 회향(18.3%) 등의 순으로 응답해 사회적 활동보다는 불교 내적인 혁신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단과 재가연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자율성과 독립성 유지(43.8%), 종단 화합과 안정을 위한 상호협력(37.1%), 종단에 대한 비판감시 역할(24.3%) 등으로 단체의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운남집 재가연대 기

획실장은 "연령이 높을수록 교단 개혁에, 젊을수록 참여불교에 대한 열망이 높게 나타났다"며, "사찰재정 투명화 등 청정교단을 위한 활동이 서명운동 차원을 넘어 보다 현장 실천 지향적이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제도화·정책화된 틀을 만들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전통사찰 정비 15억 지원

문광부 내년예산안

문화관광부 예산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예산의 1% 이상을 확보해 1조404억원으로 증액되었으나, 중무실 예산은 전년에 비해 10.3% 감소했다.

정부는 9월 26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01년 예산 규모'를 확정하고, 2일 국회에 제출했다.

문화관광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중무실 예산은 55억9700만원 규모로, 올해의 62억3900만원보다 6억4200만원이 줄었다.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 지원은 15억5000만원으로 올해와 같다.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편성되는

한글번역본 고려대장경 전산화 지원은 4억원이 책정됐다.

문화재청 예산은 문화재 보수·장비 1200억원 등 2690억원으로 올해보다 5.4% 증가했다.

정성운 기자

소적새마을 원장 현각스님

승가원(이사장 정인)은 9월25일 상락원 2층 강당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공적중심 소적새마을 원장에 현각스님(원주 성불원 주지·총회의원)을 임명했다. <관련 인터뷰 4면> 그러나 보각스님의 사퇴로 공적중심 상임이사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 지원은 15억5000만원으로 올해와 같다.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편성되는

1면 '관람료 사찰'서 계속

“스님 친견 어렵다” “관람객 서비스 부족”

는 "10여년간 가족을 데리고 국내 유수의 명찰들을 참배하러 다녔지만 관람료를 받아 보았다던지 사찰에서 법문을 듣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며 "타종교는 가가 호호 방문하며 선교하기도 하는데 제발로 사찰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보면 전방에 나선 스님들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고 밝혔다.

실제로 본지가 전국 73개 관람료 사찰을 조사한 결과 40%에 못 미치는 29곳만이 사찰 소개 리플릿을 비치하고 있으며, 관람객 대상의 포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찰은 한곳에도 없다. 13곳에서만 사찰 안내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요청할 경우 안내해주는 사찰도 11곳에 불과하다. 또 안내소를 두고 있는 사찰은 대구 동화사가 유일하며, 캐리커 서비스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 사찰은 원주 송광사와 은혜사 2곳에 불과했다. 이 밖에 포교소임사 및 포교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사찰도 18곳에 불과하다.

조사결과 대다수의 관람료 사찰은 관람료를 일반 경사비로 고스란히 소모하고 있는 반면 관람객을 위한 서비스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단차원에서 관람료 수입의 일정 부분을 포교비로 의무화하도록 제도하여 관람객들을 위한 적극적인 포교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 관람료 사용내역의 투명성 제고와 서비스 개선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찰 특성에 맞는 안내원 배치, 사찰 홍보 및 포교공간을 마련, 문화재 안내자료 등도 제작하여 배포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김원우·도필선·김두식 기자 (wwkim@buddhopia.com)

조계종 스님 1만명 추산

승려부한신고 8607명...환속도 많아

조계종 승려는 몇 명일까. 조계종총무원에서 4~10년마다 실시하는 승려부한신고를 통해 숫자를 파악할 수 있다.

총무원이 9월 18일 중앙총회에 제출한 총칙급의 답변서인 '각 본사별 신고 대상 인원 및 신고 완료 인원'에 따르면, 신고 대상 인원 1만1875명(사미·사미니 포함, 90년 부한신고 결과) 가운데 신고를 완료한 인원은 8607명이

다. 1227명은 기본교육기관 미입학, 사찰재산 미등록 등의 사유로 부한신고 처리를 보류했다.

보류자에 대해서는 서류 보완 등의 절차를 거쳐 승려증을 발급한다. 여기에 이번 부한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99년 사미(니)계 수계자 400여명을 합치고, 부한신고 기간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1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정성운 기자

4급 승가고시 “계율·경전 중심 출제”

4급 승가사에서 치뤄질 4급 승가고시 출제방향이 확정됐다.

조계종 승가고시위원회(위원장 무비) 고시전문위원들은 단순한 한문뚫듯이와 한글중심의 문제를 지양하고 계율과 경전의 대외에 충실한 문제를 9월 25일 출제했다.

4급 승가고시 시험과목은 불교 일반 화엄 사미(니)율의 각 10문항, 자경 치문 사집 사교 각 5문

항이다.

한편 조계종 승가고시위원회는 최근 승가고시 합격점수를 100점 만점에 6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원우 기자

**본사사령**  
임연태  
명 편집국 편집위원  
2000년 9월 26일

현대만평 박구원



관람객들과 함께...

사이버 불교서점 '여시아문' 오픈

www.yosiamun.com

3만여종 불서정보 제공  
클릭 한번 안방서 책구입

본사는 국내 최대 인터넷 불교서점 여시아문닷컴(www.yosiamun.com)을 1일 오픈했다. 국내외에서 간행된 3만 여종의 불서정보를 제공하는 여시아문닷컴은 신간정보는 물론 경전, 교리, 비교종교학 등 20여 분야로 상세히 분류해 원하는 불서를 안방에서 구입할 수 있다. 여시아문닷컴에서 눈여겨 볼만한 코너는 동국대 역경원에서 출간한 한글대장경을 들

릭 한번으로 검색할 수 있는 '한글대장경 검색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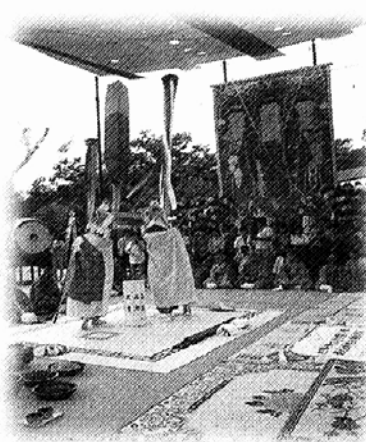
여시아문닷컴은 도서정보뿐만 아니라 불자들의 신심함양과 불교계의 움직임을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오늘의 불교뉴스', '전설로 찾아가는 사찰', '오늘의 학술문화' 등을 마련,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또 '자신의 글을 책으로'는 불교출판계의 작가 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된 코너. 본사에서는 여기에 올려진 글들 가운데 엄선 단행본으로도 출간할 계획이다. 분야는 시·수필·체험수기 등.

한편 여시아문닷컴은 자주 방문하는 네티즌들을 위한 각종 사은행사도 준비중이다.

호남 제일의 기도 도량

奉 전남 강진 남미륵사 영신 대제 行

일시 : 불기 2544년 10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부터 ■ 장소 : 전남 강진 남미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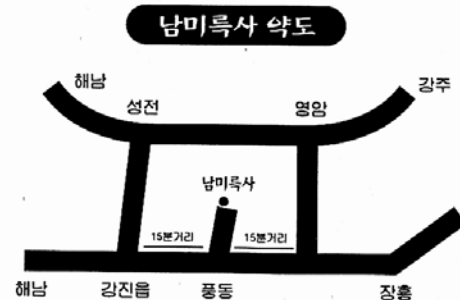


귀의 심보하옵니다.

국화향기 그윽한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가내 두루 청안 하시기를 부처님전에 기원합니다. 음력9월 9일은 중구(重九) 또는 중양절(重陽節)이라 하여 옛부터 조상의 기일이 불분명 하거나 각별히 조상의 뜻을 기리고 자 할 때 이날을 기일로 정하여 제를 모시는 길일(吉日)입니다.

호남 제일의 기도 도량인 전남 강진 남미륵사에서는 매년 음력9월 9일(重九節)에 영신대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신대제는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설법하시던 영산회상을 상징화한 의식과 더불어 호국영령 및 선망부모 천도의식을 함께 봉행합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부처님의 가피속에 선망부모와 일체 유주무주 고향들이 다 함께 이고득락(離苦得樂) 하고 극락왕생(極樂往生)하기를 기원합니다.

주지 범흥 합장



전남 강진군 군동면 풍동리 580번지 / 전화 : (061) 433-6460